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위한 호소

성서적 신앙의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소책자

앤서니 버저드 지음

정형철 옮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5)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십

www.restorationfellowship.org

목차

- 예수와 바울이 확증한 구약성경의 일신론/-3
-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누가 말했는가?/-8
- 하나님의 아들/-13
-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 편에 계신 주/-16
-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18
- 요한의 유대 언어/-21
- 아브라함 이전의 영광/-24
- 요한복음 1:1의 로고스/-28
- 예수의 “신성”/-31
- 하나님의 형상으로/-33
- 새로운 창조의 머리/-38
- “사람들이 거주할 미래의 땅에 대한 우리의 말”/-41
- 신약성경의 히브리 배경/-44
-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들 하나님으로/-46
- 모호해진 그 사람과 메시지/-48
-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들/-52
- 예수, 인간과 중재자/-57
- 교회의 신앙 고백/-58
- 부록/-60

예수가 성서에 의하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시사는 주요 기독교 교파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들에 익숙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많다. 주목할 만한 오늘날의 다수 학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성서 연구자들은 성서가 예수를 대문자 “G”로 쓰는 “하나님”(God)으로 설명한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데, 이것은 대체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도전받게 된다. 성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숭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요한 4:24) 이루어져야 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서는 우리가 “다른 예수”(고린도후서 11:4)를 믿게 되는 위험, 즉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메시아로, 계시된 존재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예수가 자신을 결코 “하나님”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상적인 사실이다. 또한 주목할만 것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스어로는 “호 테오스”(ho theos)라는 단어가 약 1,325번이나 “아버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단히 대조적으로 예수는 단지 소수의 본문들에서만, 아마 두 개의 본문에서만 “신”(god)으로 불려진다.¹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의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¹ 볼트만 (Bultmann)은 예를 들면 『철학적 신학적 에세이』*Essays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p.276에서 요한복음 20:28이 신약성경에서 “신”(god)이라는 호칭을 예수에게 적용한 유일하게 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8

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와 같은 현격한 차이가 신약성경의 용례에서 드러나는 것인가?

이 두 번째 명백한 경우라고 동의할 것이다. 『뉴 어메리칸 성서』(*New American Bible*)의 주의 깊은 번역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오 신이여, 당신의 왕좌가 영원하소서”(시편 45:6). 성서의 하나님은 수천 번 단수 인칭 대명사 “나”(I), “당신”(You), “그”(He) 등으로 지칭된다. 단수 인칭 대명사들은 단일한 개성체를 묘사하는 것이 지 세 개성체를 묘사하지 않는다. 성서에서 거의 4,400번 가량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낱말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세 위격들 [혹은 세 개성적 존재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이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성서는 결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과 이질적이다.

예수와 바울이 확증한 구약성경의 일신론

20세기 성경 독자들은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구약성경의 가르침의 첫번째 원리인 일신론 (monotheism)의 힘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참된 하나님은 유일한 개성체 (Person)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격 (Godhead)의 복수성이라는 관념은 무엇이든지 위험한 우상숭배로 간주되어 거부되었다. 율법과 예언자들은 반복적으로 ‘단지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다음과 같은 성경 본문들을 온전히 기억하게 되면 그 누구도 신격 안의 “구별들”을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뉴 어메리칸 스탠더드 성서』(*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인용)

“들으라, 오 이스라엘이여! 주 하나님은 한 분 주이시다”(신명기 6: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우리는 모두 한 분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는가?”(말라기 2:10)
(Do we not all have one Father? Has not one God created us?)

“내 앞에 어떤 하나님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이사야 43:10)
(Before Me there was no God formed, and there will be none after Me.)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존재가 없다”(이사야 45:22)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이사야 46:9)
(I am God, and there is no one like Me.)

엄밀하게 일신론적 진술들의 예들은 구약성경에서 더 많이 찾아 나열할 수 있다. 주목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하나님이란 분이라는 구약성경의 주장을 확증하고 강화했다는 점이다.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해 수집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들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흔들만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한 유대인 율법학자(신학자)의 유명한 말,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분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는 그가 “지혜롭게 말했다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마가 12:29-34)고 칭찬했다.

예수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는 그의 유대적 유산인 부정할 수 없는 일신론을 오해될 수 없는 말로 확증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요한 5:44), “유일한 참된 하나님”(요한 17:3)이라고 말했다. 기록된 그의 담론들 전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버지에게만 적용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부조리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들렸을 것이다. 요한복음 5:44와 17:3에 보이는 예수의 일관된 일신론적 어법은 하나님을 유일한 독특한 개성적 존재로 보는 구약성경의 견해를 반영한다. 우리는 바울이 지닌 유대적 구약성경의 정통파적 정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고린도전서 8:6)에 대한 그의 기독교적 믿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 자신 인간인 메시아 예수”(디모데 전서 2:5)와 구별되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바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단일한, 창조되지 않은[스스로 있는] 존재였다 (에베소서 1:3). 예수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고양(高揚)되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는 예수 자신의 말에 보이듯이, 그의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3:12).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를 요약하기 위해 한 때 뱅고르 신학교(Bangor Theological Seminary)의 교회사 교수였던 L.L.페인 (L.L. Paine)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약성경은 철저히 일신론적이다. 하나님은 단일한 개성적 존재이다. 삼위일체설을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는 관념은 신학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가설이었지만, 결코 근거가 없다. 유대인들은 한 민족으로서 모든 유형의 다신교적 경향들에 대한 철저한 반대자들로 교육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단호한 일신론자들이다. 이 점에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간의 어떠한 단절도 없다. 일신론적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성경 경전들을 통해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그의 가르침은 속속들이 유대적이며,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이다. 그는 ‘율법과 예언자들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고 선언했으며, 유대적 일신론의 위대한 본문, 즉 ‘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다’를 그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에 대한 예수의 선포는 구약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 그는 약속된 나라의 ‘메시아’이며, 유대적 희망의 ‘사람의 아들’이다... 그가 때때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라고 물었다고 해도, 그는 메시아신분에 대한 함축적 긍정 외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삼위일체설 진화의 비판적 역사』 *A Critical History of the Evolution of Trinitarianism*, 1990. pp4, 5).

일신론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에 내포된 힘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 의해 잘 예증된다.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적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 개성적 존재들로 구성된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한 순전한 개념화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러 시대에 걸쳐 자신이 세계에 준 순전한 일신론 개념화를 훼손하거나 모

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 왔고, 그 일신론을 약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기 보다는 차라리 방랑하고, 고난을 받으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랍비 J.H. 헬즈 Rabbi J.H. Hertz).

에즈라 D. 기포드 (Ezra D. Gifford)는 『참된 신, 참된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성령』(*The True God, the True Christ, and the True Holy Spirit*)에서 “유대인들 자신들은 그들의 경전들이 정통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암시를 포함한다는 함축을 진지하게 부인한다. 이 주제에 관한 예수와 유대인들의 관점은 결코 다르지 않다. 즉 그들은 하나님은 단지 한 분이시고 이것이 인간에게 제시된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점을 주장한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원 60년대로부터 80년대까지의 사도교회 (the apostolic church)의 이해를 대변하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들을 조사하면, 우리는 예수가 자신을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온 창조되지 않은 존재로 믿었다는 어떠한 암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마태와 누가는 하나님에 의한 특별한 창조행위를 통해 메시아의 잉태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발생했을 때로부터 예수의 기원이 시작된 것으로 추적한다. 이 기적적인 사건이 나사렛 예수의 시작, 즉 생성 혹은 기원의 표식이다 (마태 1:18, 20). 잉태 이전부터 예수가 “아들”로 존재했었다고 암시하는 “영원한 아들신분”(eternal Sonship)²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런 관념은 신약성경 문

2 “아들의 영원한 생성”이라는 구문은 정통 삼위일체론의 요체인데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생성한다는 것은 실존하게 한다는 것인데,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아담 클라크 (Adam Clarke) 박사의 저항과 비교해 볼 것. “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 충분히 존중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허용될 수 있으리라고

서들이 완성된 이후에 기독교 사회로 도입되었다. 그것은 성서 필자들의 사유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믿는다. 즉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신분 교리는 나의 의견으로는 비성경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영원성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조리하고 '영원한 아들'이라는 구문은 분명한 자기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원성'이란 시작이 없다는 것이고 그 어떤 시간과의 연관성 속에 있을 수 없다. '아들'은 시간, 생성, 아버지를 상정한다. 그리고 그런 생성에 선행하는 시간도 상정된다. 그러므로 '아들'과 '영원성'이라는 두 용어들을 결합하는 것은 그 둘이 본질상 다르고 대조적인 관념들을 함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가복음에 대한 『논평』 *Commentary* 1:35). 버스웰 (J.O. Buswell) 박사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원한 관계로서의 '생성'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기독교 종교의 조직신학』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Zondervan, 1962, p.111).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누가 말했는가?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은 잘 확립된 일련의 전제들을 지니고 그 신성한 기록들을 접근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이 성서[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외부의 저자들에 의해 고안된 신학적 체계들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성서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권위라고 주장하고 믿으면서도 전통적인 이해방식을 상당히 많이 쉽게 수용한다.³

우리가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슨 근거로 예수와 초기 교회가 예수가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주장했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구약성경이 예수에 관해 예언했던 역할을 그가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증명되어야 했던 것은 히브리 예언 속에서 메시아에 대해 설정되었던 “세목들”에 그가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하는 것이었다. 마태는 예수의 생애와 경험의 사실들 속에서 실현된 구약성경에 대해 인용하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마태 1:23, 2:6, 15 등등).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앞부분 장들에서) 모두 함께 예수가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의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역설한다.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의 많은 부분을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점을 히브리 경전들을 통해 입증하는 데에 할애했다 (사도행전

³ 나는 다음과 같은 브루스 (F.F. Bruce)의 날카로운 관찰에 빚지고 있다. “‘오직 성경에만’(Sola Scriptura) 관심을 고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이 믿는데) 흔히 사실은 ‘오직 성경에만’이라는 해석의 전통적 학파에 고착한다. 복음주의 신교도들은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정도로 전통의 하인들일 수 있다. 단지 그들은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서신문에서)

28:23). 예수의 아이덴티티가 그에 대한 구약성경의 묘사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메시아신분에 대한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든 메시아가 “동등한 하나님”(coequal God), 즉 창조되지 않은 두 번째 존재로서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존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자라고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구약성경이 이런 식의 견해를 전혀 말하지 않는다면 (또한 구약성경이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창조되지 않은 신격의 두 번째 영원한 개성적 존재로서 전적인 의미의 “하나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보는 그 어떤 주장도 의심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히브리 성경에서 그러지는 메시아상은 무엇인가? 신약성경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신분에 대한 예수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할 때 즐겨 인용하는 것은 신명기 18:18이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드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베드로 (사도행전 3:22)와 스테반 (사도행전 7:37) 두 사람은 모두 예수가 “그 약속된 예언자”(요한 6:14)라는 것을, 즉 그 기원이 이스라엘 가문에 있고 그 기능은 모세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 근원적 본문을 사용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즉 오랫동안 약속된 신의 신성한 대변자, 이스라엘과 세계의 구원자를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3:26).

다른 고전적인 메시아적 본문들은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 태어날 것이다”(이사야 9:6), “여자의 씨”(창세기 3:15), 아브라함의 후손(갈라디아서 3:16), 그리고 다윗왕가의 후손(사무엘하 7:14-16, 이사야 11:1) 등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통치자일 것이다(마태 2:6, 미가 5:2). 그에 관한 몇 가지 칭호들 중에는 “강한 신”(mighty god)과 “영원한 아버지”(everlasting father)(이사야 9:6)가 있다. 이 이사야 9:6에 나오는 본문 표현 때문에 메시아가 창조되지 않은 존재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이것은 물론 일신론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예민하게 읽는 독자라면 그 본문 하나 때문에 유일한 개성적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구약성경의 지속적인 주장을 전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신성한 신탁들이 유대인들에게 위임되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강한 신”이라는] 신성한 호칭이 부여된 메시아 왕을 이제 갑자기 신비롭게 “두 개의” 개성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영원한 신격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탱해 왔던 모든 전통적 견해와는 모순된 것이다. 이사야 9:6에 보이는 “강한 신”은 주요한 히브리 어휘사전에 의하면 “신성한 권위를 반영하는 신성한 영웅”이라는 뜻으로 정의된다. 동일한 어휘사전은 이사야가 사용한 “신”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천사들만이 아니라 “권능과 지위를 지닌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도 쓰인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원한 아버지”의 경우 이 호칭은 유대인들에 의해 “다가올 시대의 아버지”⁴로 이해되었다. 사람의 아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아버지”(이사야 22:21)가 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었다.

시편 45편에서 “이상적” 메시아 왕은 “신”으로 호칭되었지만 그 때문

⁴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전들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그 히브리 표현으로 옮겼다.

에 유대적 일신론이 손상된다고 여길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신”(여기서는 *elohim*)이라는 단어는 한 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스러운 장소들에서의 신성한 대표자들 혹은 신성한 권능과 능력을 반영하는 대표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Brown, Driver, Briggs의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p.42,43). 시편 필자와 히브리서 1:8에서 그를 인용한 히브리서의 필자는 메시아 왕을 묘사하기 위해 “신”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특수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알고 메시아의 “하나님”이 그의 왕권 특혜들을 그에게 부여했다고 곧바로 덧붙였다(시편 45:7).

메시아의 기원에 관해 자주 인용되는 미가서 5:2의 본문조차도 어떤 유형의 문자적, 영원한 선재 (先在 *preexistence*)설도 수반하지 않는다. 같은 미가서에 나오는 유사한 표현을 보면 야곱과 행해진 약속이 “옛적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미가 7:20).⁵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인간 역사의 초기에 이미 이루어졌다 (창세기 3:15, 창세기 49:10, 민수기 24:17-19 등과 비교),

예수의 메시아신분에 대한 질문을 예수 자신과 사도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아보면,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이 되기 위해 인간이 된다고 암시하는 방식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그 왕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도록 정해졌었다(사무엘하 7:13-16, 이사야 7:14, 마

5 카우치 (E. Kautzsch)의 소견과 비교할 것. “미가서 5:2의 언급은 동떨어진 고대에 대한 것이고, 신명기 32:7은 이것이 마치 말해진 것의 대상이 메시아의 영원한 선재인 것처럼 ‘오래된 날들’이라는 (‘영원성의 날들’이 아니라) 뜻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스팅스 성서 사전』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extra vol., p.696), 『펄핏 논평』 *Pulpit Commentary* (미가서, p.82)은 “영원한 생성은 인간적 관점에서 말하면 신학적 허구이며, 철학적 부조리이다”.

태 1:23). 그리고 그와 같이 어거스투스 (Caesar Augustus) 황제 [로마제국의 첫 번째 황제, BC 27-AD 14] 통치 동안에 메시아가 등장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오래 지속된 많은 혼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때문인데, 그 혼란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지 않은 존재 혹은 영원한 신격의 구성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믿은 전통적 사고의 전제로부터 유래된다. 그런 관념은 결코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관념이 그토록 집요하게 지속되는 것은 신학적 세뇌 혹은 사상 주입의 영향력을 입증한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메시아를 뜻하는 동의어로서 대안적인 호칭이다. 그렇게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 전체를 하나의 지배적인 주제, 즉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비친다(요한 20:31). 이 칭호들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를 일치시키는 것의 근거는 자주 언급되는 구약성경의 구절, 즉 시편 2편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꾀하여 야훼 (주 LORD)와 [야훼]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임명하신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 *Messiah*)를 대적하며”(시편 2:2)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편 2: 7, 8)라고 한 부분이다. 예수는 그 시편 전체를 망설이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안에서 민족들을 통치하게 될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본다(요한계시록 2:26, 27)⁶

⁶ 대부분의 신학적 체계의 약점은 계시록에서 예수에게 귀속된 진술들 속에서 그 스승의 말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을 거부하는 데에 있다.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론을 무시하면 그 계시록 1:1에서의 예수의 주장은 부인되고 왜곡된 그리스도론으로 귀결된다.

베드로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마찬가지로 동일시하는데, 그때 신성한 계시를 통해 그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 16:16).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질문한다.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마가 14:61).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 (요한 1:49), 메시아 (요한 1:41),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요한 1:45, 신명기 18:15-18과 비교)라고 이해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천사들에게도 적용된다(욥기 1:6, 2:1, 38:7, 창세기 6:2, 4, 시편 29:1, 89:6, 다니엘 3:25). 또한 아담(누가 3:38),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 4:22),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요한 1:12). 이 직함이 창조되지 않은 존재, 영원한 신격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런 관념은 신성한 아들신분에 대한 성서적 관념에서는 다만 부재할 뿐이다.

누가는 신성한 아들로서의 예수의 신분이 처녀의 자궁 속에서 잉태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점을 잘 안다. 그는 그 어떤 영원한 기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누가 1:35). 시편 필자는 메시아의 아들신분의 기원이 확정적인 순간, 즉 “오늘”(시편 2:7)이라고 본다. 메시아는 기원전 3년경에 태어났다 (마태 1:20, 누가 1:35). 그의 탄생은 그와 같이 역사상

의 출현과 연결된다 (사도행전 13:33, 제임스왕역 제외). 그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 (히브리서 1:5, 요한서 5:18, 제임스왕역 제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성경의 이 구절들에 의해 분명하게 제시된 것은 예수의 아들신분에 대한 성서적 관념이다. 아들신분, 그것은 예수의 잉태, 부활, 혹은 그의 왕 신분의 임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들신분에 대한 누가의 견해는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여성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희망과 분명하게 일치한다 (마태 1:1, 누가 3:38). 우리가 조사했던 성경 본문들은 그 아들이 영원 속에서 개성적 존재로서 선재 (a personal preexistence)했다는 것에 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 편에 계신 주

예수는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도 메시아신분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 점은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숙하게 긍정할 때 동일한 어조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마가 14:61, 62)을 대제사장이 보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으로써 더욱 분명해 진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가장 잘 묘사되는 곳은 다니엘 7:13, 14인데, 그곳에서 인간 형상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세상 지배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시편 2편과의 평행이 분명한데, 시편 110편과의 긴밀한 연결도 마찬가지이다. 다윗은 그 구절을 통해 세계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임명받고 “적들 가운데에서 지배하게” 될 때까지 주님(Lord)(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는 “주”(lord)(메시아)에 대해 언급한다 (시편 110:2, 마태 22:42-45 비교). 사람의 아들은 시편 80:17, 즉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메시아와 연결된다.

신약성경의 필자들이 시편 110편을 약 23번 인용하고 그것을 예수에게 적용하여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인데, 그때 예수는 이미 메시아적 주로서 불멸성의 존재로 고양되어 시편 필자가 예견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오른 편으로 올라가셨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한” [신 혹은 천사로서 영원 전부터 선재함] 아들신분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설명적 호칭들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 놀랄만한 사실은 모든 지역의 성서연구자들이 예수에 관해 배웠던 것과 성경에 의해 제시된 예수를 비교해 보도록 인도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관한 성서의 설명과 부합

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를 지상에서 일시적인 생애를 마친 영원한 존재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보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요한의 복음서는 예수의 아이덴티티를 주요한 주제로 담고 있다. 요한은 하나의 주된 목적을 지니고 복음서를 작성했다고 말하는데,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20:31)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17:3, 5:44, 6:27과 비교)이신 아버지와 자신을 조심스럽게 구별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라는 삼위일체론적 증거를 요한의 기록에서 찾고자 한다면, 요한의 의도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요한 자신의 유대적 전통의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삼위일체적 견해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단지 아버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요한 5:44, 17:3) 요한 자신의 (그리고 예수의) 주장을 전복시키고 구약성경과도 모순된 새로운 메시아신분에 대한 상을 요한이 소개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명백한 자기모순은 결코 있음직하지 않은 일이다.⁷

이제 예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명백히 구약성경의 엄밀한 일신론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가 12:28-34). 그런데 예

⁷ “요한이 신약성경에서 유대교의 근본적 교리에 대한 어떤 증인들 못지않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증인이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로마서 3:30, 야고보서 2:19 비교). 유일한 참된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 (요한 5:44, 17:3)” (로빈슨 J.A.T. Robinson, 『열두 개의 추가 신약성경 연구』 *Twelve More New Testament Studies*, SCM Press, 1984, p.175). 예수는 아버지를 “참된 하나님인 유일한 한 분” (요한 17:3)이라고 지칭한다. 그런 진술들이 모든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단지 아버지만이 한 분 참된 하나님이시다.

수가 결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요한이 말함으로써 유일신론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인가? 요한복음 10:34-36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는 자신의 지위를 구약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 대변자의 역할로 규정했다. 예수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판단을 “아버지와 하나” (요한 10:30)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시했다. 그것은 “기능”의 동일성으로서 그것에 의해 아들은 완전하게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들 신분에 대한 구약성경의 이상인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불완전하게 실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왕인 메시아에 의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었다.

요한복음 1:29-38에서의 논쟁은 다음과 같다. 예수가 그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장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 됨은 협력과 기능의 동일성으로서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과 아버지에게 대해 원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동일성이다 (요한 17:11, 22).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때문에 예수가 자신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의 말은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요한 17:36)이라고 주장한 것으로서, 그것은 메시아와 동의어로 인정되는 것이었다. 아들신분에 대한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는 논박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대표자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신들” (시편 82:6)로 호칭되었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고려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영원한 창조되지 않은 아들신분에 대한 주장을 확립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예수는 자신의 직분과 기능을 사사(士師)들의 그것과 비교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고, 유일한 메시아이며,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자로서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존재이기 때문에, “탁월한”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예수의 자신에 대한 설명 속에는 구약성경의 일신론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며 신명기 6:4의 성스러운

본문을 고쳐 쓸 필요성도 전혀 없다. 예수의 자기이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적 계시가 부여하는 엄밀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메시아라는 자신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고, 성경 경전들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요한의 유대 언어

예수가 요한복음 10:34-36에서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God)이 아니라 고 부인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자신의 말과 모순되는 것을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요한의 복음서는 마음 속에 특정한 자명한 원리들을 확고하게 새기면서 조사해야만 한다. 예수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요한 17:3)과 구별된다. 아버지 한 분만이 하나님이 다 (5:44). 요한은 그의 기록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이 쓴 모든 것들은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20:31)이라는 하나의 위대한 진리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예수 자신이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신”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동격의 하나님 신분”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수 자신의 자기호명은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요한 10:36)일 뿐이다. 요한복음 10:24, 25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명백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고 자주 언급한다. 그 구문을 읽으며 평균적인 독자는 요한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침례자 요한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것이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요한 1:6). 일반적으로 예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사사기 6:8, 미가 6:4).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도 예수가 “보내진” 것과 같이 “보내지게” 될 것이었다 (요한 17:18).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이전 삶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의 “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즉 문자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요한 6:50, 51). [바리새인(Pharisee) 니코데무스(Nicodemus)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했지만 (요한 3:2), 예수가 선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세상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예언자에 대해 말할 때 (요한 6:14, 신명기 18:15-18과 비교),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아있었다고 뜻하지는 않는다. 야고보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 1:17)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와 유대인들이 신성한 기원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 쓰는 문자적 방식인데, 그것은 처녀 잉태에 의한 탄생을 통해 예수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이었다.

요한복음에 있는 “선재” 진술들은 (요한 3:13,⁸ 6:62) “사람의 아들”과 결합되는데, 그것은 인간을 뜻한다. 이 성구들로부터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지상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있었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설명은 다니엘이 [예수 탄생] 600년 전에 환상 속에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의 오른 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주목하면 불필요하다. 그 오른 편 자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가 [지상에서 태어나기 이전]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메시아로서 예수는 자신이 나중에 하늘로 고양되도록 정해진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영감 받은 환상에 의하면 그것이 영광 속에서 재림 [Parousia]하기 이전에 메시아가 겪을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미래에 땅으로 재림하기 이전에 참으로 “선재”한다.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탄생하기 이전에 다니엘에 의해 미리 예견되었다. 따라서 예수는 “고양된 인간”(an exalted human being), 즉 이전에 자신의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 편으로

⁸ 대신으로, 예수의 “승천”은 신성한 비밀들에 대한 그의 지성을 지시하는 것일 수 있다 (잠언 30:3,4 비교).

승천되는 것을 기대했다 (요한 6:62).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에서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좌에 실제로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과 다니엘을 둘 다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는 구약성경에서 그에 관해 예언되었던 것들이 무엇이든 일어나기 이전에 태어나야만 했다!

아브라함 이전의 영광

예수는 자신의 역사가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누가 24:27).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윤곽이 그곳에 명백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신성한 기록은 그 어떤 것들도 메시아의 출현이 구약성경의 일신론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시사하지 않는다. 많은 증거가 사도들이 결코 한 순간도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을 의문시하지 않았으며, 예수의 출현이 일신론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 문제도 야기하지 않았다는 명제를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한 두 본문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17:3)이라는 예수 자신의 강령적 진술을 스스로 전복시킨다고 제시한다면, 혹은 영원 전부터 의식 있는 존재로 자신이 존재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이라는 범주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면, 성서의 통일성은 파괴된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가졌었던 영광을 위한 예수의 기도는 (17:5) 다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자신을 위해 미리 예비되었던 영광에 대한 욕망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예수가 제자들을 위해 예정해 두었던 영광 또한 “주어진” 것이었지만 (요한 17:22, 24), 그들은 “아직” 그것을 받지 않았다.⁹

⁹ 미래를 위해 약속된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존재했다고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이 유대적 사유의 전형이다. 따라서 요한 17:5*에서 예수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 그 영광은 그의 약속된 보상이었다. *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한 17:5).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에 보관된 보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보상이다 (마태 6:1, 요한 17:5 비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일부 유대 문서들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에게 선제가 추정되지만, 그것은 다만 성막, 율법, 예루살렘 도시, 율법수여자 모세 그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훌륭한 사물들과 사람들과 함께 공동된 방식이다” (오트리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탁월한 중요성을 가진 것들은 무엇이든, 예를 들면 모세, 율법, 회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등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유대적 사유방식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은 십자가 수난이 세상의 기초가 확립되기 이전에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계시록 13:8 킹제임스역). 베드로는 기원 1세기 말에 글을 쓰면서 여전히 예수의 “선재”가 단지 하나님의 예지 속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베드로전서 1:20). 사도행전의 앞부분 장들에 보이는 그의 설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견해를 반영한다.

그러나 자주 언급되는 증명 본문인 요한복음 8:58, 즉 예수가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다는 진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는 결국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 (17:3, 5:44)이라고 말하고 그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요한 10:36)이라고 해 놓고, 다른 편으로는 자신이 또한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고 함으로써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그는 구약성경의 알아 볼 수 있는 범주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규정하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자신이 존재했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제시했다는 것인가? (요한 10:36, 시편 82:6, 2:7). 결코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삼위일체설 문제가 요한복음의 이 본문 하나 때문에 제기된다는 것인가? 요한복음 8:58 본문을 같은 복음서 10:36에 나오는 예수의 나중 진술과 함께 성경 다른 부분들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철저히 유대적 분위기로 보면, 예수가 랍비적 전통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용어들을 사용하여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다. 유대적 맥락에서는

Ottley, 『성육 교리』 *Doctrine of Incarnation*, p.59).

누군가가 “선재”했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그를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고 입증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은 그 누군가가 신의 계획 속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함의한다. 예수는 분명히 창조의 중심적 이유이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행위와 구원의 계획이 증명된 것은 독특하게 창조된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탄생 때였다. 하나님의 자기표현이 한 인간 속에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때 예수의 개성적 존재가 시작되었다 (요한 1:14).¹⁰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는 종종 동문서답 문답놀이 같은 것이었다는 점은 잘 확인된 사실이다. 요한복음 8:57에서 예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자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한 것이었다 (8:56). 그 족장은 마지막 날에 부활될 때 일어나서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요한 11:24, 마태 8:11).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는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십자가 순교를 당했다” (계시록 13:8, 킹제임스역, 베드로전서 1:20). 물론 실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한 예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메시아와 그의 왕국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왕국은 신앙의 눈을 통해 아브라함에 의해 “보여졌다”는 의미에서 “선재했

¹⁰ 케어드 (G.B Caird)의 『신약성경에서의 그리스도 교리 발전』*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 of Christ in the New Testament*, p.79 비교. “유대인들은 다만 의인화의 선재만 믿었다. 예를 들면 지혜는 신적 속성 혹은 신적 목적에 대한 의인화가 되었지만 결코 지혜가 사람은 아니었다. 네 번째 복음서나 히브리서도 영원한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것을 사람으로 보도록 하는 견지에서 말하지는 않는다”.

다.”¹¹

요한 8:58에서의 “나는 이다”(I am)라는 표현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은 자주 주장되고 있는 것과 같이 야훼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ego eimi o ohn)라고 선언한 출애굽기 3:14에 보이는 신의 이름이 아니다. 예수는 그런 호칭을 어느 곳에서도 주장한 적이 없다. 요한 8:58에서의 “에고 에이미”(ego eimi)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내가 그이다,” 즉 약속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다. (요한 4:26에서 “그대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라는 동일한 표현과 비교할 것).¹²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는 “예견되었다”(베드로전서 1:20 비교). 예수는 이렇게 요한 8:58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확립된 자신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11 벤트 (H.H. Wendt, D.D.)는 요한 8:58에 대해 논평하면서 “예수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고 예견되었다”고 쓰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The Teaching of Jesus*, Vol. II, p.176).

12 에드윈 프리드 (Edwin Freed), *JTS* 33, 1982, p.163. “요한 8:24에서 ‘에고 에이미’(ego eimi)는 예수의 메시아신분에 대한 지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너희가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의 로고스

요한 1:1에서의 “말씀”이 “예수 탄생 이전의” 제 2의 신성한 개성체를 뜻한다고 이해하는 이유는 단지 습관의 힘 때문일 뿐이다.¹³ 잠언 8:22, 30과 누가 11:49에서의 지혜에 대한 유사한 의인화에 보이는 “여성 인칭대명사”가 제2의 개성적 존재 (혹은 개성체) 를 뜻하지 않는다. 요한과 예수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 신격에 “제2의 신성한 개성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듯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 (17:3), “단지 그 한 분만이 하나님”(5:44)이다. 로고스 (“말씀”)라는 용어를 구약성경의 전망으로 읽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 부여의 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시편 33:6-12).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목적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힘이다 (이사야 55:11). 만약 우리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말씀을 창조적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과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이다 (마태 13:19, 갈라디아 6:6 등등).

이러한 관념들의 복합체가 “로고스” 즉 “말씀”의 의미를 구성한다. “그것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것 없이는 아무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요한 1:3). 요한 1:14에서는 초자연적으로 잉태되는 순간에 자신의 신성한 기원이 시작되는 현실 속의 한 인간 속에서 “말씀”이 실현된다.¹⁴

¹³ 주 10을 볼 것.

¹⁴ 요한 1:1-14를 논하는 제임스 던(James Dunn)의 『제조중의 그리스도론』(*Christology in the Making*, p.243과 비교할 것. “우리의 분석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결론은 우리가 개성적인 로고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다만 14절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 요점은 남성적 로고스를 ‘그’로 번역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의해

이 순간부터 “때가 차게 되어” (갈라디아 4:4)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새로운 창조를 통해 표현하는데, 그것은 아담을 통한 최초의 창조에 대한 대응물이다. 예수의 잉태와 탄생은 역사상의 하나님의 목적의 전례가 없는 새로운 단계를 표식한다.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는 구원의 전체 프로그램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 그는 영원불멸성으로 가는 길을 개척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한 인간 속에서 계시된다 (히브리서 1:1).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다른 생명을 위해 그 이전의 한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 창조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아담과의 평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게 될 것이다 (누가 3:38). 또한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요한 10:35)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순전한 일신론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원 1세기에 한 새로운 아들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말씀 씌음을 하시기 시작한다 (히브리서 1:1). 영원히 존재하는 아들이라는 관념은 일신론을 공격하고 예수의 현실적 인간성을 위협하면서 성서적 기획을 폭력적으로 혼란시킨다 (요한 1서 4:2, 요한 2서 7)

요한의 복음서에서의 예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의 동료 사도들과 요한 자신을 조화롭게 만들 것이며 구약성경의 일신론이 저해받지 않고 유지되게 할 것이다. 교회사의 사실들이 신약성경 시대 직후에 이방 그리스 사상의 영향 하에 히브리 성경의 제한 없는 일신론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메시아신분에 대한 예정된 체제가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실재성과 함께 망각되었다. 그 결과 어떻게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희미해진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대신 로고스를 ‘하나님의 발언’으로 번역했다면, 그 시작품이 반드시 1절에서 13절에서의 로고스가 개성적인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제2의 신성한 개성체가 단일한 개인으로 완전히 인간인 한 존재 속에서 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갈등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메시아가 실제로 선재했다는 개념은 침투된 사상으로서 맞지 않는 그리스도론 퍼즐의 한 부분이다. 그런 개념과는 달리 하나의 분명한 예수 상이 히브리 계시와 사도들의 가르침의 용어들 속에서 출현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유일한 참된 하나님, 즉 그 분만이 홀로 하나님 (요한 17:3, 5:44)으로 남을 것이고,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됨은 진정으로 아들인 한 존재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의 통일성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외 성서의 모든 곳에서 그 용어를 이해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요한 10:36). 만약 기독교가 회복되고 통일되려면 기독교를 탄생시킨 히브리 세계에 대한 공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인들의 오도된 성찰에 의한 훼손이 없는, 성서에서의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예수의 “신성”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독특한 신성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신성은 온전히 그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영 (Spirit) 때문에, 또한 성령 (Holy Spirit)의 영향을 받고 그가 독특하게 잉태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 3:34). 바울은 “신격의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골로새서 1:19, 2:9)는 것을 인정한다. 인간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요한 1:14).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이 “메시아 안에서 세상과 그 자신을 화목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5:19)는 것을 식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다. 즉 인간 속에서 구현된 신성한 성격의 완전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도 표명되었지만 (시편 8:5, 창세기 1:26 비교), 그 정도가 훨씬 더 적은 것이었는데, 예수 안에서는 아버지의 의지가 완전히 분명하게 된다 (요한 1:18, NASB).

바울이 예수에 관해 말한 것들 중 그 무엇도 그를 인간 범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성전에 거주한 하나님의 현존이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 바울이 메시아의 영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신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은¹⁵ 거의 주목받지 않는다 (에베소서 3:19).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주했듯이” (고린도후서 5:19), 그리스도도 “바울 안에” 거주했고 (갈라디아서 2:20), 그는 그리

¹⁵ 그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적합하게 침례를 받았고, 온전히 교육받았으며, 활동적이었다고 가정하기. 독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날의 관념이 성경적 정의와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마태 7:21은 신약성경의 가장 불편한 경고를 제공한다.

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에베소서 1:23, 3:19). 베드로는 “신성한 성격”을 지니는 충성스러운 자들에 대해 말한다 (베드로후서 1:4). 그리스도인이 “신성한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면 “개척자”로서 성공적으로 “행로를 완성한” 후에 구원의 과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수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진실이다 (히브리서 2:10).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도들은 언제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8:6)와 예수를 구별했는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신약성경에서의 풍부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서 2:5-11과 같은 성구를 읽으며 예수를 창조되지 않은 제 2의 존재로, 즉 하나님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를 확신에 차서 찾는다. 그리스도론의 저자가 『사도교회의 사전』(*Dictionary of the Apostolic Church*)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결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그렇게 묘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이전 생명”(pre-life)에 대한 묘사를 찾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¹⁶

예수에 대한 성서적 견해에 관한 최근의 널리 인정을 받은 연구 제임스 던 (James Dunn)의 『제조중의 그리스도론』(*Christology in the Making*)은 바울의 언어를 후세대 신학자들의, 즉 신약성경 완성 이후 여러 세기 동안의 그리스 교회 “교부들”의 결론들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성경경전에서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찾는 경향은 자연스럽다. 왜냐 하면 우리들 중 누구도 우리의 “선입견적” 이해가 성서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 위협적인 가능성을 쉽게 직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성서를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일에 종사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원한 [창조되지 않은] 존재를 몇 개의 짧은 구절들 속에서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결코 해 줄 수 없는 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

¹⁶ Vol. I. p.194.

게 하면 그가 다른 곳에서 그토록 분명하게 표현한 엄밀한 일신론을 명백하게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8:6, 에베소서 4:6, 디모데전서 2:5). 그것은 또한 그 자신이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던 바울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삼위일체론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을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이 그 성구들을 통해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선재설에 대한 자신의 유일한 언급이 될 말을 참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 언급의 맥락은 성도들에게 겸손을 종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주 제기된 질문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었다가 인간이 되기로 결정한 존재의 사고방식을 바울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져야만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이 겸손의 교훈을 강화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있음직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바울이 선재한 예수를 메시아 예수로 지칭한 것이라면 예수가 탄생 때 받은 이름과 직무를 탄생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환하게 되므로 그것은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에 드러난 바울의 태도는 애호되는 주제인 “아담 그리스도론”(Adam Christology)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존재가 아담이었는데 (창세기 1:26, 누가 3:38), 한편 제2의 아담 (고린도전서 15:45)인 예수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지”와 “형상”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다).¹⁷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졌던 반면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5), 예

¹⁷ 특히 탈버트 (CH. Talbert)의 “빌립보서 2:6-11에서의 선재의 문제,” *JBL* 86 (1967), pp.141-53을 볼 것. 또한 호워드 (G. Howard), “빌립보서 2:6-11과 인간 그리스도,” *CBQ* (1978), pp.368-87.

수는 그렇지 않았다. 비록 예수는 신성한 현존 (the divine Presence)을 반영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신성한 직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어떤 “갈망할만한” 목표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에 대한 권력을 주겠다는 사탄의 제공을 거절하고 모든 특권들을 포기했으며 (마태 4:8-10),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종으로,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는 죄인의 위치로까지 낮아지는 존재로 행동했다.

이러한 겸손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시편 110편이 예언한 것과 같이 자신의 우편에 앉는 메시아 주의 지위로 고양시켰다. 바울은 예수가 일시적으로 잠시 포기했었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 이후에 최초로 그의 고양된 직위를 얻게 된 것으로 그려진다. 비록 그는 생애 동안 메시아였지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음으로써 “주 (Lord)와 메시아 (Messiah)로 되었을 때” 그 지위가 공적으로 확정되었다 (사도행전 2:36,* 로마서 1:4).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삶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주의 지속적인 자기부정의 묘사로 읽으면, 예수의 경력에 대한 바울의 논평들 가운데 다른 것들과의 긴밀한 평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는 부유했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그는 가난하게 되었다” (고린도 후서 8:9). 아담은 타락했지만, 예수는 자발적으로 “몸을 낮추었다.”

빌립보서 2장 본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예수의 상태가 하늘에서의 그의 선재적 삶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번역들이 이 견해를 강화하는 데에 많이 기여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구문에서의 과거 시제 동사는 신약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결코 “영원 속에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비록 어떤 번역본들은 그런 의미를 강제적으로 그 속에

담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 11:7에서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영광“이므로” 절대로 머리를 덮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현재시제 동사는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는 과거시제 동사와 다르지 않다. 일반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면 신성의 모든 속성들을 다 지닌 채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 대표자로 있었던 예수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할 것이다 (골로새서 2:9). 빌립보서 2장에서의 바울의 의도는 인간이 된 영원한 신성한 존재라는 거창한 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와 같은 태도를 지니고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들로 지상으로 오기 위해 신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영원한 신성한 존재들로 우리자신들을 상상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을 선재에 관한 진술로 읽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23년에 전직 레기우스 신학 교수 (Regius Professor of Divinity)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불화를 멈추고 서로에 대해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부탁한다. 고린도후서 8:9에서 그는 자신의 글을 읽는 자들이 자선을 베푸는 일을 흔쾌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가 그 2가지 간단한 도덕적 교훈을 강화하기 위해 성육 (incarnation)의 방식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우연한 언급(그가 그렇게 했다면 유일한 예가 될 언급)을 했다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라고 묻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편안한 호소가 고린도후서 10:1에서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고한다’에 보이듯이 인간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고무적인 예를 지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평의 필자인 A.H. 맥닐 (McNeil)은 다음과 같은 의역을 제시한다. “비록 예수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성스러웠기는 해도,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스스로 종의 성격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모든 자기 주장 혹은 신성한 명예를) 비웠다.”¹⁸

바울은 예수가 인간의 현장에서 여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과 같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겸손의 지속적 과정이었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정점이었다. 제2의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겼고 그 결과로 가장 높은 고양 (exaltation)의 지위를 얻는다.

18 『성 바울의 빛으로 본 신약성경 가르침』 *New Testament Teaching in the Light of St Paul's*, pp.65,66.

새로운 창조의 머리

이담과 예수의 평행이 메시아에 관한 바울의 사고의 근본을 이룬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창조와 아담의 관계는 새로운 창조,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하다.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인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대표적 인간, 새로운 이담으로서 예수 안에서 사회가 모두 다시 시작한다. 이 상응관계는 만약 예수가 결국 한 인간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훼손된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누가 3:38)로 창조된 것과 같이 예수의 잉태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누가 1:35)로 구성한다. 물론 아담은 땅에 속한 인간인(고린도전서 15:47) 반면,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인간”인데, 바울에 따르면 그의 “탄생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충성스런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재림할 때”에 그렇다(고린도전서 15:45).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재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에 내포된 결함을 본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림, 즉 파루시아(Parousia)에 중심이 있다. 그 이후 후대의 사유에서 관심의 중심이 예수의 탄생으로 이전되었다. 그에 따라 기이하게도 전통적 도식은 역행하여 과거를 보지만, 반면에 성서는 주로 메시아가 영광 속에서 미래에 다시 오는 것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정한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를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이 되는 머리로 묘사한다. 그의 의도는 골로새인들을 헐박했던 경쟁적 타종교 조직의 주장들에 대항하여, 부활과 새로운 질서에서의 우위를 통해 예수가 획득한 최상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모든 권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골로새서 1:16) 형성되었다. 따라서 예수는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은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마태 28:18). 여기서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는 “왕좌들, 지배, 통치자 혹은 권위들”로 구

성된 생명력 있는 지적 창조물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의해”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그의 “왕국”이었다 (골로새서 1:13).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 째로 나온 자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의 장남이다 (15, 18).¹⁹ “장남”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창조된 질서의 원천일 뿐만이 아니라 그를 그 선도적 구성원으로 지칭하는 것인데, 그 지위는 그가 부활을 통해 최초로 불멸성을 받았기 때문에 획득한 것이다. 요한은 계시록 3:14에서 유사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예수 그 자신이 창조의 부분이었던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의미하는 것이 된다. 성서에서 “장남”이 최상의 직위를 지닌 자를 지칭한다는 것은 시편 89:27에서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장남,” 즉 메시아가 “땅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서 다윗처럼 백성들 중에서 선택되어 고양된 존재이다 (시편 89:19*). 마찬가지로 바울은 히브리 경전들에 의해 이미 잘 확립된 메시아 개념을 발전시켰다.

¹⁹ 골로새서 1:17의 경우 많은 번역자들은 NASB 역자들보다 덜 주의 깊는데, NASB는 예수가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선재했다는 함의를 주변으로 퇴출시킨다. 예수가 문자적으로 시간상 최초로 창조되었고 혹은 영원히 실존했던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에서 그가 최상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그가 모든 것들 “앞에” 있다고 보는 바울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요한 1:15, 30의 번역에서 선재설에 대한 유사한 열정이 그 절을 “내 뒤에 오실 그는 나를 능가하는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앞의 위치를 차지하셨다”고 번역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 번역들 속에 드러난다 (레이먼드 브라운 Raymond Brown이 『앵커 바이블』 *Anchor Bible* 시리즈에서 한 논평을 참조. 그리고 웨스트콧 Westcott에 의한 것. 또한 『제네바 바이블』 *Geneva Bible* (1602)의 번역인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 NIV는 예수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신다” 혹은 “되돌아가신다”로 묘사할 때는 오도하게 된다. 그는 “가시오” 혹은 “승천하신다” (요한 13:3, 16:28, 20:17을 볼 것).

바울의 진술들 중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제2의 영원한 신성한 존재”를 찾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다. 예수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된 제2의 아담으로서 이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임무였던,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창세기 1:26, 시편 8). 예수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질서의 머리로서 인간 인종을 대표한다. 그는 하늘의 성전에서 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재한다 (히브리서 8:1). 부활한 주에게 그와 같은 높은 호칭을 부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6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시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한 데에서 표현한 자신의 분명한 일신론을 침해했다고 생각할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골로새서 1장에서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바울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결별하여, 다른 곳들에서는 그가 그토록 주의 깊고 분명하게 진술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전체 신학 배경 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일신론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전혀 없다.

“사람들이 거주할 미래의 땅에 대한 우리의 말”

히브리서 필자는 예수의 인간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다. 예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면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 (히브리서 4:15). 하나님은 본래 아들을 “통해서” (“의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그 아들의 운명을 고려하면서 세대들을 만드셨다 (히브리서 1:2). 하나님은 과거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기에 대변인들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 후, 마침내 이제는 참으로 아들이신 존재를 통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2). 히브리서 필자는 예수가 창세기 창조작업에서의 적극적 수행자였다고, 예수가 모르는 사실을 (마가 10:6),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창조작업을 마친 후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하나님이였다 (히브리서 4:4, 10).²⁰ 또한 “그가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히브리서 1:6), 아들을 “미래의 사람이 거주할만한 땅”으로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²¹

²⁰ 신약성경은 창세기 1:1, 사도행전 7:50, 14:15, 17:24, 계시록 4:11, 10:6, 14:7, 마가 10:6, 13:19에서 설명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께 관해 대단히 분명하다. 히브리서 1:1-2는 히브리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예수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신을 뜻할 그 어떤 가능성도 제외한다. 또한 머레이 해리스 (Murray Harris)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Jesus as God* (Baker, 1992), fn.p.47: “히브리서 필자에게는 (모든 신약성경 저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외의 다른 분이 아니다. (사도행전 2:30, 33, 3:13, 18, 25, 26 비교). 신약성경에서 테오스 (theos)가 규칙적으로 아버지지만 지칭하고 결코 삼위일체를 지칭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엘로힘 혹은 야훼가 구약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p.273(fn)에서 해리스는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지칭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²¹ 아들의 기원은 따라서 기적에 의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특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메시아가 지상에 다시 올 때, 그에 관한 많은 중요한 진술들이 역사가 될 것이다. 첫째, 메시아의 왕좌가 확립될 것이다 (히브리서 1:8) (마태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비교).²² 아버지의 신성한 위엄을 재현하는 메시아적 호칭인 “신”은 예수에게 적용될 것인데, 그것은 한 때는 이스라엘의 최상의 사시인 메시아를 예시했던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들에게도 적용되었었다 (시편 82:6). 시편 102:25에 보이는 또 다른 예언도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서 실현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가 이사야 51:16과 65:17에서 예견한 것과 같이 수립될 것이다. 히브리서 1:10은 주 메시아가 창세기 창조에서 관여했던 것을 뜻한다고 쉽게 잘못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철저히 메시아적인 시편 102편을 70인역 (Septuagint)으로부터 히브리서 필자가 인용한 것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그 필자는 특히 아들에 관한 일련의 진리들은 아들이 땅으로 “다시 오게 될” 때를 지칭한다고 진술한다 (히브리서 1:6). 그리고 히브리서 2:5에서 그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그 땅은 그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할 미래의 땅”이라고 말한다. 그 필자가 자신의 논평을 제공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만 한다. 그의 관심사는 메시아 왕국이지 창세기 창조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응당 가져야 할 신약성경의 메시아적 비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성서 전체의

기적적 사건으로 명백하게 설정된다 (이사야서 9:6, 마태 1:18, 20, 요한서 5:18) [focusonthekingdom.org에 공개된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주가 있다.] 토마스 헤윗 (Thomas Hewitt)의 『히브리서에 대한 턴데일 논평』(Tyndale Commentary on Hebrews (1960), p.56 비교. “그러므로 번역은 ‘그가 다시 그의 장남을 세상에 보낼 때’이다.”

²² 또한 마태 19:28, 누가 22:28-30, 계시록 2:26, 3:21, 5:10 참조. 다른 많은 본문들과 함께 그것들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설립될 메시아 왕국을 예견한다.

철저한 메시아적 전망에 따라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만 한다.²³

²³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02편을 히브리서 1:10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브루스 (F.F. Bruce)의 『히브리서』*Epistle to the Hebrews*, pp21-23 참조 또한 이 책 부록 3 “예수는 삼위일체론자가 아니다”도 참조

신약성경의 히브리 배경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약성경 저자들의 일치된 이해의 원천이 되는 히브리 성경의 주요 본문들을 열거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세계를 요약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메시아가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찾을 수는 없는데, 그러한 혁신적 개념의 원천을 찾으려면 성서 외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영광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원래 목적은 이 땅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는 것이었다 (창세기 1:26, 시편 8). 그러한 이상은 시편 기자가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도록” (시편 8:5, 6)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왕관을 씌운 그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신적 계획이 전개됨에 따라 사탄에 의해 야기된 재난을(창세기 3:15) 역전시킬 약속된 “여자의 씨”가 다윗왕의 후손일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된다 (사무엘하 7:13-16).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며 (사무엘하 7:14)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권을 수여할 메시아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될 것이다 (시편 2). 그러나 왕권을 수행하기 전에 메시아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며 “주”라는 호칭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10:1).²⁴ 사람의 아들로서, 대표적 인간으로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적 제국을 관리할 권위를 받기 이전에 그의 자리를 하늘에서 지키고 있을 것이다 (다니엘 2:44, 7:14, 사도행전 2:20, 21). 처음 지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죄로 인해 고통

²⁴ 히브리어 단어 “주”(adoni, my lord)는 그 단어의 195번 등장에서 결코 신격의 경칭이 아니다. 반대로 주 하나님은 449번 등장하는 Adonai이다. 이 중요한 본문은 성서의 어떤 저자도 메시아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부록 참조

을 겪었으므로 (이사야 53, 시편 22), 그는 하나님의 장남, 땅의 왕들의 지배자로서 재림할 것인데 (시편 89:27), 그것은 또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다윗에 의해 예시되었다 (시편 89:19, 20).

제2의 모세로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었는데 (신명기 18:18),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함으로써 그의 신성한 아들 신분을 획득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 (로마서 1:4).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는 이제 하늘에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히브리서 8:1) 모든 사물들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도행전 3:21), 그때 그는 왕들 중의 왕, 시편 45편에 나오는 신성한 인물로 이 땅에 다시 오기로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 1:6-8). 그 때, 왕국의 새로운 시대에 그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마태 19:28, 누가 22:28-30, 고린도전서 6:2, 디모데후서 2:12, 요한계시록 2:26, 3:21, 20:4). 아담이 지상에서의 처음 인간 창조의 선두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는 인류의 새로운 질서의 창조된 우두머리이며, 그 안에서 인간 인종의 이상들이 성취될 것이다 (히브리서 2:7).

이와 같은 메시아적 체제 안에서 예수의 인격과 활동을 사도들이 이해했던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진보된” 그리스도론을 제시할 때도 그들의 목적은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목적의 중심인 (요한 1:14)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요한 20:31). 비록 예수는 명백하게 그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지만, 아버지는 성서적 일신론의 “유일한 참된 하나님”으로 남는다 (요한 17:3). 따라서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현존을 대표한다. 인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 (Immanud),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현존한다 (요한 14:9).²⁵

²⁵ 요한 20:28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 두

하나님의 아들이서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는 영감받은 기록들에 제시된 다양한 갈래의 자료들을 집합하여 성서의 예수에 대해 탐구했다. 그 결과 나타난 그림은 전통적인 기독교에 의해 제시된 그림과 다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설명한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서적 신앙(faith)의 첫 번째 원리, 즉 홀로 참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인 그 한 분에 대한 믿음(belief)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 17:3, 5:44).

어떻게 성서적 메시아가 탈성서적 [성서 이후의] 신학자들에 의해 “아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인 아들 (God the Son)이 되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성서의 본질적 메시아주의 (Messianism)가 점차로 억압되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료애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영광을 묘사하는 순전히 메시아적인 호칭인데 기원 2세기 때부터 그것이 잘못 이해되었고 하나님/인간 (God/Man)의 신성한 성격을 뜻하는 것으로 재적용되었다.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마찬가지로 대표적 인간으로서의 메시아라는 칭호인데, 예수의 인간적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들이 그것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의미가 탈색되어 버리고, 성서적 의미가 상실되었다.

경칭들은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에 부여된다 (시편 45:6, 11, 110:1). 요한의 전체적 목적은 예수를 메시아로 제시하는 것이다 (요한 20:31). 그러나 도마의 그 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요한 14:7에서 예수는 도마에게 “만약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그를 알고 그를 본다.” 결국, 예수의 부활 후에 도마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에게 위임하셨던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요한 20:28는 도마와 빌립과 예수의 이전 대화의 속편이다 (요한 14:4-11).

구약성경의 증거가 공관 복음서들,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요한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부인되었고, 요한복음과 바울의 서간문 두, 세 편에서의 일련의 본문들이 재해석되어 예수가 영원한 삼위일체의 제2의 구성원으로서 본질상 동일하고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예수는 성서적 기록들에서의 예수가 전혀 아니다. 그는 또 다른 예수이다 (고린도후서 11:4).

모호해진 그 사람과 메시지

메시아에 관한 성서적 의미가 상실된 것과 함께 예수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적 왕국의 의미도 동시에 상실되었다 (누가 4:43, 사도행전 8:12, 28:23, 31). 회복된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확립하려는 희망, 즉 예수가 와서 확증했던 (로마서 15:8)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들의 주제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의 희망으로 대체되었고, 상당한 분량의 선전문들이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지상적이고,” 정치적이며, “비영적인” (unspiritual) 것을 결코 믿지 않았다고 교육받지 못한 대중에게 확신시켰다 (지금도 계속 확신시키고 있다).

교회의 전망을 (기원 2세기 초 무렵부터 시작하여) 점차 장악하게 되었던 근본적 변화들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해만이 아니라 예수의 중심적 메시지,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누가 4:43, 사도행전 8:12, 28:23, 31)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왜냐 하면 교회들은 한편으로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 예언들을 성취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땅을 통치하기 위해 온다는 구약성경의 약속을 예수가 거부하게 된 것으로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제시되는 이론은 예수가 구약성경을 사랑의 윤리적 이상을 가르치는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땅에서 확립될 하나님 나라에서 사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파국적인 역사상의 신성한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전망은 부인했다는 것이다.²⁶ 요컨

²⁶ 예수는 예언된 신정정치가 언젠가는 메시아인 그에 의해 확립될 것이라는 점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신학이 미래 메시아 왕국의 진리를 상실함에 따라 또한 예수와 충성스러운 교회의 미래 공동통치의 전망도 상실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대 예수는 메시아로 선언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동시대인들이 갈망했던 신정정치 (theocracy)의 회복에 대한 모든 희망은 제거했다는 가설이 생긴 것이다.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참으로 땅을 통치할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예수는 이른바 그러한 “조야한” 기대와는 의견을 달리 했다는 식으로 오랫동안 주장되었다.²⁷ 유대인들이 왜 이 땅에 구체적인 메시아적 제국이 설립될 것을 기대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조용히 회피된다. 만약 그러한 질문이 제기되면 분명히 구약성경 경전들이 그것 [지상에서의 메시아적 제국의 설립]을 매우 세부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들이 신성한 드라마의 첫 번째 막, 즉 고통 받고 죽어가는 메시아와 관련된 부분만을 허용하고, 두 번째 막, 즉 승리에 찬 왕, 이 땅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사로서 메시아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점은 무시함으로써 성서를 공명정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아버지의 우편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현재 기간은 신약성경이 그 점을 이해하듯이 다만 하나님 아들의 승리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나의 심각한 근본적인 오해가 역사상의 예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들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메시아 신분의 주요한 요소인 메시아의 정치적, 신정정치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성경의 대부분의 직설적인 진술들과 대조적으로, 미래의 메시아적 왕국에서 교회가 예수 자신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교회에 대한 그의 약속들은 (마태 19:28, 누가 22:28-30)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²⁷ 구약성경, 시편 2편 등과 같은 솔로몬의 시편들에서도 발견되었다.

보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지금까지 기울이고 있다. 계속 간과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예수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때는 현 시대의 끝에 “예수가 영광 속에서 올 때”이며 (마태 25:31), “그가 왕으로서 그의 직무를 행할 새로운 시대”에 있을 일이라는 점이다 (마태 19:28). 티끌만한 의혹도 없도록 신성한 존재들의 합창은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할”(요한계시록 5:10) 운명을 지닌 왕들과 제사장들의 계보로 구성된,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온, 교회에 대해 노래한다. 시편 2편의 순전한 메시아주의는 요한계시록 2:26과 3:21에서와 같이 강력한데, 이 본문들은 교회에 대한 예수 자신의 말이다 (요한계시록 1:1, 22:16). 성경에서의 예수는 구약성경의 예언과 묵시문학(apocalyptic literature)에서의 바로 그 예수 외의 다른 사람이 아니다.

교회 신자들이 “신앙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현재의 이런 저런 신조들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조사에 참여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수 의견들이 자동적으로 올바른 의견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정직해야 하는데, 그런 전통적 의견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와 사도들이 가르쳤던 원래의 신앙을 파묻어 버릴 정도로 멀리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캐년 HL 구지 (Canon HL Goudge)가 “히브리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 재난에 대해 글을 쓰면서 관찰한 내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²⁸ 캐년 구지에 의하면 그 “교리와 실천에서의 재난”으로부터 “교회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회복은 요한이 “예수의 메시아신분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요한 1서 2:22)라고 엄중하게 경고한 것을 충분히 주목할 때에만 시작될 수 있다.²⁹ 예수

²⁸ 유대교와 기독교에 관한 에세이들 선집, 『유대인들의 소명』*The Calling of the Jews*

는 “메시아”라는 그 고도로 화려한 용어가 성서적 맥락에서 뜻하는 바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닌 채 메시아로 선포되어야만 한다.

²⁹ 완드 (J.W.C. Wand, D.D.)에 의해 의역된 『신약성경 서신문들』*New Testament Letters*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들

“그리스도를 전도하기”에 관한 기사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 사전』 (*Dictionary of Christ and the Apostles*, Vol. II, p.394), 제임스 데니 (James Denny)는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고, 고양되었고, 주권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양된 왕자와 구원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더 열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에게 대해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훌륭한 진술에 이어서 “사도들의 전도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설교 외에는 없다”는 또 다른 가치 있는 관찰이 덧붙여진다. 그렇다면 예수와 사도들이 설교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가 참된 종교를 위해 절대적인 중요성을 재현했던 방식들 중의 하나는 이것이다. 즉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간주했다. 메시아 역할은 단지 유일한 한 사람에게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었고, 바로 예수 그 자신이 당사자였으며, 다른 누구도 아닌 그가 그리스도였다.” 이 모든 말은 탁월하지만 뒤따르는 생각은 반대되는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신분에 대한 불편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른 시대에도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용어를 관대하게 넓은 뜻으로 쓸 때만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제임스 데니는 자신이 예수의 성서적 메시아신분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를 메시아 직무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아이덴티티도 모호하게 만들어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계속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우리가 느끼는 것

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지금은 없는 형태와 색채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점을 함축할 수밖에 없다. 데니는 우리가 이제 메시아신분에 대한 성서적 정의를 무시하고 그 메시아신분에 대한 우리 자신만의 관념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바로 이 경향이 사도들의 사망 직후 교회가 당면했던 재난을 야기했다. 교회는 메시아에 대한 그 자체의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서에서의 예수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상실했다. 데니는 “메시아”라는 용어가 “한때 그것과 결합된 기대들이 지녔던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이제 상실되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그렇게 그 의미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데니는 “특히, 메시아라는 용어의 종말론적³⁰ 연상들이 우리에게는 초창기 신자들의 경우와 달리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연상들이 ‘그리스도’와 동의어로 사용된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중심으로 결집된다.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예수가 재림하는 것보다 원시 기독교에서 더 특징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것이 초기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로 뜻했던 것의 바로 그 본질이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그들의 전망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다르다고 보는 것은 무슨 권위에 근거한 것인가? 분명히 성서에 나오는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특성들 중의 하나를 배제하면서 여전히 동일한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는 없다.³¹ 초기 교회의 특징적

³⁰ 즉 시대의 종말에 발생할 사건들과 관련된다.

인 희망으로부터 미묘하게 벗어난 것이야 말로 바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과 그 이름으로 사도들이 이해했던 것의 치명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신약성경 개념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데니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를 초기에 그에 관해 설교했던 사람들처럼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상정하는” 경향이 학자들 사이에 있다고 미심쩍게 보는 것은 맞다. 그는 그런 비판은 예수의 “개성을 ‘정확히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은 것으로, 그의 의식을 ‘정확히 우리 자신 의식의 가능성’으로 만드는 것을 업무로 삼는다”(강조를 위한 인용부호는 필자)고 이어서 말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이지만, 또한 데니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사도들의 전망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즉 그의 사역 속에서 그 권능이 미리 현현된 하나님의 미래 왕국의 통치자로 보는 그들의 중심적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사도적 기독교의 본질적인 특징”이었던 희망을 우리가 포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슨 논리로 가능한 것인가? 이 자기모순 속에 교회가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수 없는 큰 실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망과 메시아신분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를 더 선호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관념에 예수의 이름을 부착시키는

31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에 관한 기독교 교리들이 “사탄의 존재가 없이는 전혀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 『나는 사탄의 추락을 믿는다』 *I Believe in the Downfall of Satan*, Eerdman's, 1981, p.20.)

것이 적합하다고 느꼈다. 우리는 이방인적 마음의 이미지를 따라 “다른 예수”를 창조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론의 표준적인 저작물들을 정독하면 독자가 예수에 대한 진리를 향한 개인적 추구를 시도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입장권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논문에서 한때 옥스퍼드 신학 교수였던 윌리엄 샌데이 (William Sanday)는 예수가 “선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념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어떤 본문들이 4복음서들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보이는 예수에 관한 모든 진술들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칭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탄생 이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었다는 단 하나의 언급도 없다. 우리가 요한의 복음서를 조사하면, “애매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난 표현들을 찾으려면 아주 자세히 살펴야만 한다. ‘아마 하나도 없다’” (『해스팅스 성서 사전』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IV, p.576. 강조를 위한 인용부호는 필자).

그렇다면 이것은 4복음서들을 통틀어서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언급하는 단 하나의 본문도 없다고 보는 한 주도적인 전문가의 진술이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여전히 예수의 영원한 창조되지 않은 선재한 아들신분을 신앙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샌데이 교수는 마태, 마가, 누가가 왜 예수의 선재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는지 이렇게 추정한다. “아마도 그 사도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점에 관한 우리 주의 가르침의 일부도 재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같은 책 p.577). 서간문들을 고려할 때 샌데이는 히브리서 1:1-3에서 선재한 아들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여겨질 지도 모르지만 결코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단지 추

측할 뿐이다. 골로새서 1:15에 대해서 그는 “‘장남’이라는 단어의 주도적인 관념은 법률적 권리들에 대한 관념이고 그보다 늦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간 상으로도 또한 더 우선적이라는 관념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부연한다. 그는 한 독일 신학자가 “구약성경과 랍비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 (즉 그가 하나님이라는 교의)로 인도하는 길을 찾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소견을 마무리한다. 베른레 (Wernle) 교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칭은 엄밀하게 유대적이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 아들(혹은 아들 하나님)로 더 나아가면 그것은 이교주의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에 의해 도입된 해이한 관념을 통해 이방인적 토대 위에서 채택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같은 책 p. 577).

이런 유형의 진술들은 “선재한 아들신분”이라는 전체 사상체계가 얼마나 빈약한 토대 위에서 구축된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 성서 이후의 시대로부터 유래되는 예수에 관한 교리적인 진술들이 사도들의 권위가 아니라 그것들[진술들]의 권위에 의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고하게 인식해야 한다. 가장 현명한 행로는 우리의 입장을 성경 그 자체의 교리적 진술들에 기초하여 세우고 “영원한 생명은 이것에 있다. 즉 아버지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와 함께 확인하는 일이다 (요한 17:3).

예수, 인간과 중재자

사도들이 제시한 예수는 “이들 하나님”이 아니다. 이 경칭은 성서의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며 그 기원은 그의 기적적인 잉태로부터 유래한다. (누가 1:35).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약성경에 계시된 한 분 위격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수는, “그 자신이 인간” (디모데전서 2:5) 이며 한분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 사이를 중재한다. 이 예수가 “온전히” (히브리서 7:25)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예수는 기만적인 위조로서 회피되어야만 하는데, 너무 쉽게 “용납된다” (고린도후서 11:4).

교회의 신앙 고백

예수가 설립한 교회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심적인 고백에 기초한다 (마태 16:16). 이 고백은 새로운 비성서적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부착되면 심각하게 왜곡된다. 그런 왜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신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져야 한다. 그런 왜곡의 효과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 긴박하게 필요한 일은 베드로의 확고부동의 반석 고백으로 복귀하는 것인데, 그는 예수의 면전에서 (마태 16:16),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2:3),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에,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예지되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명시된다고 선언했다 (베드로전서 1:20). 예수의 메시아신분을 알리는 엄청난 사실은 단지 신성한 계시에 의해서만 이해된다 (마태 16:17).

기독교를 설립한 인물은 히브리 성서적 체제 내에서 제시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신앙의 예수이기도 한 실제적,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체제이다. 그 체제 외부에서는 우리는 “다른 예수”를 고안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그의 성서적 묘사 경칭들이 원래의 의미들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1:4 비교).

예수의 호칭들에 새로운 비성경적 의미가 투입되면, 그 호칭들이 그의 아이덴티티를 더 이상 진실 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기독교적 신앙은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예수를 예언자들의 비전의 메시아로 공언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고,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뜻해야 하는 것은 예수와 신약성경이 이 용어들로 의미한 것과 같아야만 한다. 교회는 다만 사도들과의 조화 속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줄 때에

만 진정한 기독교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부록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가장 인상적인 사실들 중의 하나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시편 110:1은 약 23번 인용된 신약성경의 지배적 그리스도론의 증명 본문이다. 하나님과 메시아 사이의 관계는 메시아에게 부여된 경칭인 “아도니”(adoni)에 의해 정확히 지시된다 (시편 110:1). “주”라는 말의 이 형태는 구약성경에서 변함없이 (모두 195번 등장하는데) 바신위 (non-Deity)을 지칭한다. “아도니”는 “아도나이”(adonai)와 주의 깊게 구별되어야 한다. “아도나이”는 449번 등장하는 모든 성경 본문에서 신격을 의미한다. “아도나이”는 시편 110:1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중요한 구별은 그 성스러운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고 마태 22:41를 비롯한 다른 절들에서 예수 자신에 의해 확증된다. 그 본문은 메시아를 그가 아무리 고양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 범주에 설정한다. 시편 110:1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유일한 분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메시아의 지위를 묘사하는 핵심 본문이 된다 (사도행전 2:34-46 참조).

아도나이와 아도니 (시편 110:1)

신약성경의 가장 선호되는 구약성경 증명 본문

왜 메시아는 “아도니”(adoni) (나의 주)로 호칭되고 결코 “아도나이”(adonai) (주 하나님)로 호칭되지 않는가? “아도나이와 아도니는 인간과 신성한 신원의 구별을 표시하는 [랍비적 유대교의 권위적 텍스트인 마조레틱 (Masoretic) 지시의 변이들이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아도니”는 탁월한 인간들을 지칭한다. “아도니”(Adoni)는 사람들, 나의 주, 나의 주인 [시편 110:1 참조].

“아도나이”(Adonai)는 하나님, 주님 (브라운Brwon, 드라이버Driver, 브릭스Briggs의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와 영어 어휘사전』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p.10, 11의 “adon”=[lord] 항목).

“‘아도니’(ADONI)(‘나의 주’my lord) 형태, 이 고귀한 왕권적 경칭 (사무엘전서 29:8)은 야훼에 대해 쓰는 신성한 경칭인 ‘아도나이’(ADONAI)(‘나의 주님’my Lord)과 주의 깊게 구별되어야 한다.” “‘아도나이’(ADONAI), 특수한 복수형태 [신성한 호칭]은 ‘아도나이’(adonai) [단모음]=나의 주들 [창세기 19:2에서 나옴]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Lord” 항목 p.157).

“구약성경에서는 신성한 존재에 적용되는 ‘아도나이’(ADONAI)에 대한 번역용어로 ”주“(Lord)가 사용된다. 그 [히브리] 낱말은 접두사 [특별한 지시]를 추측상 구별을 위해 가진다. 때때로 그것이 신적 칭호인지 인간적 칭호인지가 불확실하다. 마조레틱 본문은 때로는 이것을 주석으로 결정하는데 ‘거룩한’이나 단지 ‘탁월한’이라는 낱말의 구별을 위해서, 때로는 ‘아도니,’ ‘아도나이’(단모음)와 ‘아도나이’(장모음)과 같은 모음의 변이에 의해 결정한다. (『헤스팅스 성서 사전』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Lord,” Vol.3., p.137).

“히브리어 ‘아도나이’(Adonai)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지시한다. 그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450번 입증된다. ‘아도니’(Adoni)는 인간들에게 지칭된다 (창세기 44:7 민수기 32:25, 열왕기하 2:19 등등). 우리는 ‘아도니아’(adonai)라는 낱말이 ‘아돈’(adon) [즉 adoni]의 세속적 사용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특수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추정해야 한다. 왜 일반적인 아돈 (adon) 대신에, 즉 [단모음으로 된] 아도니 (adoni) 혹은 아도나이 (adonai) [장모음으로 된] ‘아도나이’(adonai)로 [하나님이 칭호되었는지] 그 이유는 야훼를 다른 신들로부터 그리고 인간 주들로부터 구별

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성서에서의 신들과 악마들 사전』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p.531).

“‘아도나이’ (*Adonai*) (주 하나님)에서의 a의 장모음화는 작은 외적 기호에 의해 그 단어를 성스러운 것으로 표식하려는 마조레트 (*Masoretes*)들의 관심으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다” (『구약성경의 신학사전』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T*, “Adon” 항목, p.63.

『신약성경의 신학사전』 *Theological Dictionary of NT*, III, 1060 ff. n. 109).

“‘나의 주에게’라는 형태, 라도니 (*l’adoni*)는 신성한 지칭으로서 구약성경에서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은 그 마조레틱 지시는 신적 지칭 (*adonai*)과 인간적 지칭 (*adoni*)을 구별한다.” (비그램 *Wigram*, 『영국인의 히브리어 찰디 구약성경 콩코던스』 *The Englishm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T*, p.22) (Herbert Bateman, 「시편 110:1과 신약성경」 *Bibliotheca Sacra*, Oct.-Dec. 1992, p.438).

에딘버러 대학의 래리 허타도 (*Larry Hurtado*) 교수는 그리스도론에 관한 현대 고전의 예찬받는 저자인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도나이’ (*Adonai*)와 ‘아도니’ (*adoni*)라는 용어들이 다르게 가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자는 YHVH를 발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경건한 방식이고, 후자는 동일한 단어를 ‘신이 아닌 인물들’을 위해 사용한다” (2000년 6월 24일자 편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변모되었는가

신약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로 제시한다. 그는 야훼,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행자와 대면자로 기능한다.

예수는 그의 교회를 자신이 “메시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마태 16:16)이라는 계시에 토대를 두고 설립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창조 혹은 탄생되었다 (마태 1:20, 누가 1:35, 사도행전 13:13, 제임스왕역 제외, 요한 1서 5:18). 이것은 그를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혹은 “독특하게 탄생된 하나님의 아들” (요한 1:14, 18, 3:16, 18, 요한1서 4:9)로, 그리고 주 하나님 (the Lord God)이 아니라 주 메시아 (the Lord Messiah)로 구성한다. 그는 탄생되었기 때문에, 즉 실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정의상 영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아들”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무의미한 표현이다. “영원한”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탄생되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뜻이다. 모든 아들들은 탄생된다. 따라서 “아들 하나님” (God the Son)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오도된 경칭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 기원 2세기 이후 아마도 저스틴 마터 (Justin Martyr)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교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역사 이전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그의 참된 아이덴티티를 왜곡하고 실추시켰다. 그들은 새로운 인간 창조의 수장, 제2의 아담으로서의 그의 지위로부터 그를 제거해 버렸다. 그들은 그의 실제 역사를 최소화했고 그의 우주적 유사 이전을 고안했다. 이것이 “인간 메시아 예수”로서의 그의 아이덴티티를 파괴했다. 후에 오리젠 (Origen)은 “탄생된” 혹은 “생성된”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담았다. 그는 예수를 “영원히 생성된”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기원전 2년 경 아들의 실제적 “생성” 혹은 “탄생”에 대한 신약성경의 설명과 모순되는 의미 없는 개념이다.

그 터무니없는 “삼위일체의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니케아 이전 교회 교부들에게로 유래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회복주의자들”(restorationists)이 옳게 추적했는데, 그 교부들은 중기 플라톤

주의 모델을 이용하여 역사적 예수,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을 유사 이전의 세속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서에 묘사된 메시아 아들/왕을 대체해 버린 형이상학적 이들을 생산했는데, 사실 메시아 아들의 실존은 다윗과 맺은 계약에 의한 약속된 왕으로 예언 되었을 때 여전히 미래의 일이었다 (사무엘하 7:14, “그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2는 구약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루프스 (Loofs) 교수는 성서적 기독교의 초기 변조의 과정을 묘사한다.

“변증자들 [기원 2세기 중엽 저스틴 마터와 같은 교회 교부들이 기독교를 계시된 [철학적] 가르침으로 타락/변모 (*Verkehrung*)시키는 토대를 놓았다. 특수하게는 그들의 그리스도론이 후대의 발전에 재난 수준으로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선제한 그리스도로 이전하는 것을 당연시함으로써 그들은 기원 4세기의 그리스도론적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론적 사유가 역사적 예수로부터 벗어나 선제설의 이슈로 이전되는 지점에서의 변화를 야기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의 역사적 생애로부터 관심을 돌렸으며, 그 역사적 생애를 뒷편으로 밀쳐내고 그 대신 성육 [즉 선제한 아들]을 부각, 촉진시켰다. 그들은 그리스도론을 우주론에 접목시켰고 그것을 구원론에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로고스 가르침은 관습적인 것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론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인식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고스, 열등한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최고의 하나님에 종속되는 한 분의 하나님이다 (열등주의 혹은 종속주의). ... 덧붙여서, 신성한 삼인조 (*trias*)라는 형이상학적-다원주의적 개념들에 의해 경제적-삼위일체적 관념들이 억압된 것은 변증론자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리드리히 루프스, 『도그마 역사 연구를 위한 지침』 (*Leitfaden zum Studium des Dogmengeschichte, Manu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Dogma*, 1890. 1부 2장 18색선: “계

시된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그리스 변증자들” Christianity as a Revealed Philosophy. The Greek Apologists, Niemeyer Verlag 1951, p.97 번역 필자).

성서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우리시대의 주도적인 조직신학자의 날카로운 지적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경칭의 성서적 의미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 때문에 겪었던 천 년 간의 애매모호성으로부터 구출한다.

『신약성경 신학의 신국제 사전』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의 편집자인 콜린 브라운 (Colin Brown)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다.

“문제의 요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칭은 그 자체가 개성적 존재로서 신위 (Deity)의 표현 혹은 신격 (Godhead) 내의 형이상학적 구별들의 표현이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시하는 피조물에 대한 지칭이다. 특히 그것은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부통치자를 지칭한다. 그것은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왕신분에 대한 지칭이다. 나의 견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대변자,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할 칭지기신분과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 이해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용어와 수렴된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의 관계에 대한 네 번째 복음서에서의 진술들을 내적-삼위일체적 관계들의 표현으로 다루는 것은 근본적인 실수로 나에게서 여겨진다. 그러나 네 번째 복음서에 대한 이런 종류의 체계적 오독은 많은 사회적 삼위일체론 사유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요한의 복음서 서두 부분을 마치 그것이 ‘태초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었다’ (요한 1:1)라고 쓴 것처럼 읽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혼하지만 전매특허 받은 오독이다. 여기서 생긴

것은 말씀 (Word, *logos*)을 아들로 대체한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태초로부터 존재했었던 신격의 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위일체와 성육: 현대 정통교리를 향하여」 “Trinity and Incarnation: Towards a Contemporary Orthodoxy,” *Ex Auditu*, 7, 1991, pp.87-89).